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무역 전쟁에서 살아남기: 혼란의 시기, 어떻게 투자할까
- ◇ 中, 9 월부터 주요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할 듯
- ◇ (칼럼)-한은 집행부의 커뮤니케이션 실패와 '철없는 채권시장' 편견
- ◇ (칼럼)-부쩍 바빠진 외환당국의 '손길', 소통은 잘 되고 있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벌채된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산불이 타고 있다. 최근 개간 등으로 삼림이 훼손된 아마존 상황이 관심을 끌고 있다. (로이터/웨슬레 마르첼리노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30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211.2	0.0%	-7.9%	-4.1%	유로	1.0989	-1.4%	-4.2%	-4.4%
100엔 대비	1,137.6	1.1%	-10.7%	-6.9%	엔	106.29	-0.8%	3.1%	2.8%
유로 대비	1,329.1	1.7%	-3.9%	0.2%	위안	7.1430	-0.8%	-3.8%	-5.3%
위안 대비	168.94	1.1%	-4.2%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403.28	3.0%	13.2%	-5.6%
코스피	1,967.79	1.0%	-3.6%	-17.3%	나스닥	7,962.88	2.7%	20.0%	-3.9%
코스닥	610.55	0.3%	-9.6%	-15.4%	S&P500	2,926.46	2.8%	16.7%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494.65	0.5%	3.7%	-16.2%
국고채 3Y	1.168%	-0.1bp	-64.9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232%	1.3bp	-65.2bp	-45.9bp	미국채 2Y	1.510%	-2.1bp	-98.8bp	60.7bp
국고채 10Y	1.276%	1.5bp	-67.2bp	-52.1bp	미국채 10Y	1.499%	-3.4bp	-119.2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5.10	1.7%	21.3%	-24.8%	한국 5Y	31.86	1.02	-6.20	-13.74
금(현물)	1,519.85	-0.4%	18.5%	-1.5%	일본 5Y	21.75	0.61	-0.04	-3.34
TR상품지수	2,236.08	-1.3%	-5.7%	0.0%	중국 5Y	45.01	-1.08	-21.46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9월 2일(월)>

- 마르키트, 닛케이 8월 한국 제조업 PMI(09:30)
-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12:00)

<3일(화)>

- 한은, 2분기 국민소득(잠정)(08:00)
-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거시정책협의회

<4일(수)>

- 한은, 8월말 외환보유액(06:00)
- 통계청,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5일(목)>

- 한은, 7월 국제수지(잠정)(08:00)

<6일(금)>

- 특이 일정 없음

<8일(일)>

- KDI 경제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9월 2일(월)>

- 일본, 8월 외환보유고(2~6일, 08:50)
- 일본, 8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09:30)
-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10:45)
- 유로존, 8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17:00)
- 미국 휴장

<3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결과(13:30)
- 유로존, 7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8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22:45)
- 미국, 7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8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 (23:00)

<4일(수)>

- 일본, 8월 서비스업 PMI (09:30)
-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8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17:00)
- 유로존, 7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7월 무역수지 (21:30)
- 미국, 8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지수 (22:45)
- 미국, 8월 전미 차량(트럭) 판매 (5~12일, 06:00)
- 캐나다 중앙은행(BOC) 기준금리 발표(23:00)

<5일(목)>

- 스웨덴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16:30)
- 미국, 8월 챌린저해고건수 (20:30)
- 미국, 8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2분기 노동비용 수정치 (21:30)
- 미국, 8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22:45)
- 미국, 7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23:00)
- 미국, 7월 공장주문 (23:00)

<6일(금)>

- 일본, 7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7월 경기동행/선행지수 (14:00)
- 유로존, 2분기 GDP 수정치 (18:00)
- 미국, 8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21:30)
- 미국, 8월 실업률 (21:30)

<7일(토)>

- 중국, 8월 외환보유고 (17: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을 격화시킨 영향에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 미국과 중국이 4차 관세 부과를 시행한 가운데 양국 갈등이 일시적으로 크게 악화할 경우 달러/원 환율은 전 고점인 1223 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 양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치킨 게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국이 뒤로는 슬쩍 협상의 문을 열어둔 만큼 이번 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보다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물론 있다.
- 시장이 무역 분쟁 이슈에 크게 동요하고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꾸준히 대두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한국과 주요국의 경기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주말 발표된 한국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6% 감소해 9개월 연속 하락했다. 3일 발표될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에 대한 관심도 크다.
- 한편 미국은 3일(현지시간) 8월 제조업 PMI와 6일(현지시간)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각각 발표한다.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경기 지표는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다.
- 홍콩 시위도 변수다. 지난 주말 홍콩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 상황이 격화한 만큼 홍콩 시위가 어느 타이밍에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 시장은 홍콩 시위 이슈를 '블랙 스완'으로 여기며 주목해 왔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홍콩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전개 등 대외 재료와 코스피지수 등 움직임에 연동하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잘 될거야' 발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이 예정대로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확산 양상이고 9월 미-중 협상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 9월 금통위에선 두 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한은 총재 발언의 톤도 유화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그동안 벌여놓은 수익을 확정하려는 심리가 확산돼 있는 만큼 강해질 때마다 포지션을 줄이는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6일로 예정된 이일형 금통위원의 강좌 역시 관심이다. 한은의 마지막 매파로 통하는 이 위원이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분석)-무역 전쟁에서 살아남기: 혼란의 시기, 어떻게 투자할까

뉴욕(로이터)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종식을 목표로 한 협상이 계속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계획이 어지럽히고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현재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첫 발효될 9월 1일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같은 날 미국산 콩부터 자동차 부품, 소형 항공기 등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한 월요일 상승했지만 중국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무역 관련 전화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화요일에는 반락했다.

아래는 일부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무역 분쟁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1) 필 올렌도 뉴욕 페더레이티드인베스터즈 포트폴리오 매니저 겸 수석 증시 전략가는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식 비중 확대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향후 중국과 마주 앉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며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올랜도 매니저는 중국 관세에 초점을 맞춘 자동차 부품이나 농업 부문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2) 잭 에블린 크레딧 캐피탈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올해 초 자사의 리스크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장 붕괴가 있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줄인 현재의 포지션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밸류에이션과 수익률, 전망을 고려할 때 시장 붕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3) 마크 해펠 UBS AG 글로벌 CIO 는 이번주 리서치 노트에서 "세계 경제와 시장 모두에게 하방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식 비중 축소를 통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4) JP 모간 전략가들은 최근의 관세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를 더 감수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전략가들은 "8월 중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무역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지난 5월에 비해 기간은 짧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당초 예상한 대로 9월 상순부터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가장 최근의 관세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었다.

5) JP 모간 파생상품 전략가들은 무역 긴장 완화와 격화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 옵션을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브람 카플란 전략가는 노트에서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 현재의 부진한 포지셔닝과 투자심리는 빠르게 반전되고 시장은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플란 전략가는 시장이 반등할 경우 이익을 보는 S&P 500 옵션을 매입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경기 회복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무역 전쟁 격화

로 큰 타격을 입은 증시나 부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콜옵션 매입도 추천했다.

전략가들은 현재까지 관세로 인한 타격을 피했지만 9월 이후 발효될 12월의 추가 관세에 취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12월 풋옵션을 매입하라고 권고했다. JP 모간은 이러한 기업들에는 나이키, 에스티로더, 일리노이툴웍스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中, 9월부터 주요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할 듯

베이징 (로이터) -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과 중국의 금리 개혁 등으로 인해 중국이 9월부터 주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계 종사자들은 대출 비용은 점진적으로만 낮아질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 지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책결정자들은 일자리 보전을 위해 투자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큰 폭의 금리 인하는 부채 확대와 은행들의 이익마진 축소를 초래해 금융 부문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나 지난주 금리 개혁이 4년 만의 첫 중국 주요 정책금리 인하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아마도 처음 금리 인하는 완만한 수준일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인민은행이 초기에는 은행들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강하게 압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쥙웨이 인더스트리얼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첫 단계는 잔잔한 과도기가 될 것"이라며 "금리 마진이 확대되는 것은 괜찮지만 금리 마진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중기대출프로그램(MLF) 금리부터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인민은행의 새로운 기준 대출금리가 된 대출우대금리(LPR)도 내려가게 될 것이다. 다음 LPR 금리 책정은 오는 9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과 비슷하다.

팅루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우선 9월에 1년 만기 MLF 금리를 10bp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칼럼)-한은 집행부의 커뮤니케이션 실패와 '철없는 채권시장' 편견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큰 반전 없이 끝났다. 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다.

하지만 채권시장은 2명의 인하 소수의견이 확인된 후 잠깐 강세로 돌아다다 곧 추락했다. 3분기가 이미 꺾인 시점인 데다 이미 시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한 번 이상 반영한 상황에서 최근 위아래 가격 등락 폭이 워낙 커지다 보니 손익을 확정하려는 기관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채권 운용 기관들의 고민은 하나 더 있다. 연말로 갈수록 수급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민간 부문의 수요 부진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내년에 슈퍼 예산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적자국채 규모만 해도 올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60조 2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말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본격화되는 만큼 내년 초에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은행, 증권사, 외국인, 개인투자자 할 것 없이 모두 올해 큰 수익을 낸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누가 더 절묘하게 포지션을 떨어내고 나오느냐를 놓고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이 '도비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다수의 채권시장 참가자가 롱 포지션 정리를 택한 이유다.

▲한은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이유

한은 집행부가 이날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한은 집행부가 해 온 '시장 걱정'과는 정말 다른 움직임일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취임 초기부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딱히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커뮤니케이션 실패의 원인을 꼭 집어내긴 쉽지 않다. 하지만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쏠림이 심해질 때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외환당국 마인드로 채권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한다면 실패는 불가피하다.

한은 총재의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는 한은이 현재 겪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미-중 무역협상 결렬 이후 열린 당시 회의에서 이주열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장의 기대감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6월 12일 한은 창립기념사에서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의 발언을 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마침 6월 9일 브리핑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을 거둬들인 직후였기 때문에 한은 총재의 변심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됐다.

하지만 한은 관계자들은 5월 금통위 당시와 6월 창립기념사 발표 시점 사이에 한은 스탠스가 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총재가 금리 인하의 문을 열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순식간에 7월 인화로 쏠릴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5월 금통위 때는 표현 수위를 조절했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5월 금통위 때는 시장의 기대 수준을 조절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절제된 표현을 썼다는 뜻이다.

한은 집행부가 시장을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멀리는 2004년 10월 박승 당시 한은 총재가 채권시장을 '철없다'고 비난한 게 가장 유명하지만, 이성태, 김종수 등 전 총재들도 시장과의 불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 떼쓰는 어린아이 아니다

하지만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그저 때만 쓰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다. 생계를 걸고 자금을 운용하는 고독한 샐러리맨들일 뿐이다. 그들은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물론 변동성이 줄어들고 쓸림도 사라지면 그만큼 수익을 낼 기회도 사라지니 시장엔 언제나 투기적 요소가 넘쳐난다.

하지만 한은이 시장을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다루려 하면 오히려 길을 잃게 된다.

지난 몇 년간 한은의 물가 전망에 상방 편향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은 내부에선 작금의 물가 하락은 구조적인 문제라 통화정책으로 여쩔 수 없다는 회의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 역시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재고 증가 흐름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가 일본 경제의 전철을 유사하게 밟고 있는 과정에 한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유효하다. 만약 한은이 시장의 반응을 두려워해 정작 행동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채권시장 참가자들, 생계 걸고 베팅..한은, 가르칠 생각 버려야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항상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장은 알고 있었다'느니 하는 말처럼 허망한 게 없다.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시장은 항상 틀렸다. 연초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점 논란에 빠져 한 해를 보냈다. 금통위가 11월까지 고민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건 채권이라는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원금 북, 환매조건부채권(RP) 북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기본적으로 채권을 들고 가야 하는 하우스가 늘어났고, 그런 곳들은 금리가 결국 빠지기만 하면 큰 수익을 낸다.

반면 국내 증권사의 프람 부서는 지난 몇 년간 처참한 성적을 내고 이제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자기 생계를 걸고 오늘도 베팅을 한다. 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만의 세계가 강해 회사 내에서도 고립되기 일쑤다. 운용역 출신으로 경영진까지 올라가는 게 극히 드문 이유다. 딱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다수의 채권시장 참가자가 판단하기에 강해질 때가 되면 시장은 강해진다. 밀릴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은 밀린다.

한은이 나서서 미리 과열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통화정책에만 집중하면 될 일이다.

(칼럼)-부쩍 바빠진 외환당국의 '손길', 소통은 잘 되고 있나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과도한 쓸림 등에 의해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7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이후 홍 부총리를 비롯한 김용범 기재부 1 차관은 기회가 될 때마다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고했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6일 김 차관은 "원화가 위안화를 따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원화 변동성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당국 입장을 밝혔다.

이달 원화는 2% 넘게 절하했다. 올해 월간 기준 절하폭이 가장 컸던 지난 5월에는 못 미치지만, 환율이 주요 저항선인 1200 원을 뚫고 속등한 탓에 외환

시장에는 긴장감이 확산했다. 올해 들어 원화는 약 9% 절하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절하폭을 기록 중이다.

최근 시장참가자들 입을 빌리자면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수시로, 그리고 예민하게 작동시키고 있다.

사실 홍 부총리 발언 수위도 확연히 높아졌다.

지난 2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환율 관련 질문에 정부가 예상치 못한 환율 움직임에는 미세조정으로 대응한다면서도 그날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이날 외환 딜러들은 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을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홍 부총리는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겠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았고, 필요시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를 매번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발언 강도를 대폭 높였다.

최근 당국의 시장 대응도 이같이 높아진 발언 수위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거의 매일 시장에 등장해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결국 외환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단호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앞서 원화 약세 변동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셈이다.

미-중, 한-일 간 첨예한 갈등 구조 아래 원화가 직접적으로 타격받을 수 있는 데다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서 볼 때 원화가 약세를 보이지 않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진단이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 최근 당국 대응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또한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환율이 한국 경제 위기의 가능자 역할을 해 온 만큼 원화 절하폭 확대는 얼마든지 과도한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관건은 외환당국과 시장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작동하는지 여부다. 환율 변동성 확대를 연일 경고하는 당국의 강한 시그널이 아이러니하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당국의 미세조

정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동하는 순간 대내외 여건이 바뀌고 당국 대응이 바뀔 때 환율은 반응폭을 대폭 키울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당국의 잦은 미세조정과 강해진 모니터링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거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외환당국의 시장 대응 호흡이 빨라지고 예민해진 데 대해 시장이 모르는 큰 이벤트가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니지 우려하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

시장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외환당국의 호흡이 가빠 보이는 건 왜일까? 치밀한 외환당국의 전략과 전술을 어찌 다 읽어낼 수 있을까마는 외환당국과 시장의 원활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시장 변동성 차단에 힘을 쏟고 있는 외환당국에 시장이 적절히 반응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당국도 이를 잘 알고 시장 변동성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애쓰고 있다고 믿고 싶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